



劇團 아센 제19회 정기공연

구민주 모노 드라마

영순아, 어디가니?





劇團 아센 제19회 정기공연

구민주 모노 드라마

영순아, 어디가니?






劇團 아센 제19회 정기공연



구민주 모노 드라마

영순아, 어디가니?

 劇團 아센 제19회 정기공연

구민주 모노 드라마

영순아, 어디가니?





劇團 아센 제19회 정기공연

구민주 모노 드라마

영순아, 어디가니?





劇團 아센 제19회 정기공연

구민주 모노 드라마

영순아, 어디가니?



劇專 아센 제19회 정기공연

구민주 모노 드라마

영순아, 어디가니?





출연/구민주

1990.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졸업
1994. 중앙 배우 예술원 연기 강사
1998. 제16회 부산 연극제 최우수 여자 연기상 수상
2000. 극단 '아센' 창단 단원
2001. 제19회 부산 연극제 우수여자 연기상 수상
현. 소극장 미리내 대표

출연작

- 〈이혼의 조건〉 〈날 보러와요〉 〈물이여 불이여 바람이여〉 〈돌아서서 떠나라〉
〈메카로 가는 길〉 〈오메가 햄릿〉 〈불 좀 꺼주세요〉
〈홍도야 울지마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묘지 클럽〉 〈양파〉
〈여보세요!!!누구세요???)〉 〈마담M의 초상〉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 〈웨딩드레스〉
〈영순아, 어디가니?〉 등 출연

언제나 이맘때면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
반성과 후회 가득하게 나를 질책하게 되는 시간이다.
더러는 애정어린 눈빛으로 나를 다독거리는 시간이기도 하며....
내일 모레 "영순아, 어디 가니?" 막이 오른다.

러브러브베베의 옷을 벗기고
새옷을 입히기 위해 주말, 휴일의 모든 시간을—사실은 더많은 시간들을—
기꺼운 맘으로 함께해 주는 아름다운 이 있어
이번 공연을 목전에 둔 지금 나의 마음은 더욱더 많은 후회와 반성과 더불어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

'진심으로 영순이가 되어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게 하소서....'
모두들이 집으로 돌아간 극장은 언제나 침묵에 젖어 그 어떤 조용함보다 더 적막하다.
극장에서 사는 늙은 쥐는 정말 있어 다들이 돌아가고 없는 무대를 서성거리며
칠흑같은 적막을 견딜것 같다.

늙은쥐...무대 ...극장...인생....세월...적막함..침묵...어두움...시간,시간,시간....

영순이가 끝이 나면 한여름의 중앙이다 .
별이 내 코앞에 있었던 어느해 여름 그 지리산을 다녀오고 싶다.
영순이를 관객에게 보이기 위해 함께한 모든 이들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연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럴수 있어 내 삶의 시간이 요구된다면 흔쾌히 조금을 떼어 주겠다.

늙은 쥐처럼 극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든
죽어 극장귀신이 되든 어떠한 아무려하든
지금의 삶을 진심으로 즐기자 한다....

구민주의 글

만일 신이 내게, 내가 죽을 수 있는 날을 점지해 준다면,
난 그 남은 날 중 2년을 내 삶과 인생을 돌아보는 나날로 쓰고 싶다.
그 기간의 대부분은 후회와 회한의 시간이겠자만,
그래도, 죽음을 눈 앞에 둔 한 인간의 솔직한 자기와 만나는 시간에
2년은 허락받고 싶다.

그리고 그 2년이 오기 전까지 난,
내가 알고있고, 믿고있고, 믿어왔던, 인생의 비밀과의 다툼에
지치지 않는 치열함으로 살고 싶다.
그것이 교만함이었지 모를 인생에 대해 2년의 겸허함을 가질 시기를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생명이 끝나는 그 날에
기댈없이,
마지막 그 순간 나의 의지로 2시간을 버티련다.
그냥 혼자가 아닌, 둘이어서
행복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호민의 글



행복한 연극쟁이

연극을 하는 우리를 세상사람들은 힘든 일을 한다고들 얘기한다.
연극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언젠가 공연때 신을 슬리퍼를 사러 갔었는데 연극할 때
신을꺼라 얘기했더니 "연극하는 사람들 가난하다던데~"하며
신발가게 총각이 신발값을 깎아주기도 하던걸
연극을 하며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연극을 하며 더러는 존재이유를 느끼기도 하는 우린데
연극을 하는 우리를 향한 세상사람들의 시선의 의미는
측은함. 일부러 어렵게 살려하는 사람...등등
이러함의 편견을 우리가 정작 때로는 즐기고 있는건 아닐까...

행복한 연극쟁이인지..
측은하게 보여지는 연극쟁이가 될 것인지는
그야말로 한 꺾발?! 차이가 아닐까.

얼마나 절실하게 그것을 원하느냐...에 다름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민주의 글



나는 내 시에서
돈 냄새가 나면 좋겠다

뺏뺏한 수표가 아니라 손때 꼬깃한 지폐
청소부 아저씨의 땀에 절은 남방 호주머니로 비치는
깃잎 같은 만원권 한장의 푸르름
나는 내 시에서 간직하면 좋겠다
퇴근길의 백적지근한 매연가루, 기름칠한 피로
새벽 1시 병원의 불빛이 새어나오는 시
반지하 연립의 스탠드 켄 한숨처럼
하늘로 오르지도 땅으로 꺼지지도 못해
그래서 그만큼 더 아찔하게 버티고 서 있는...(중략)

나는 내 시가
동전처럼 닳아 질겨지면 좋겠다

〈최영미의 詩 중...〉

시인의 이같은 간절한 마음처럼 연극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길.
아주 먼 시간 후에도 그런 마음이 변질되지 않길...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연극을 생각하는,
극단 "아센"이 될 수 있게 새로운 작은 힘을 보태려 합니다.
눈은 밤사이 소리없이 내려 사람들을 경의로 음으로
이끌듯 보이지 않는 듯, 존재한지 않은듯,
그렇게 극단 "아센"은 불특정다수 관객의 마음속으로
젖어들게 노력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구민주의 글

연출의 글

만성자살증후군이란 긴장의 연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또는 집단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현대인의 심리에 작용되는 현대병이라고 한다. 그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일컫는 의미이기도하며, 그 속에서 무의식적인 피해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폐해의 심각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자살증후군이라는 현대인의 심리의 저변에 나타나는 일상을 통해 자살증후군은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의 몫이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강렬하게 살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두의 바램임을 담고 싶었다.

•

연출/호민

- 1981. 국풍
- 1981. 전국 대학 연극제' 신인 남자 연기수상
- 1991.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화과 졸업
- 1992. 아센 연극 스튜디오 원장
- 1995. 현대 배우 예술원 원장
- 1998. 부산 시립극단 창단 단원
- 2000. 극단 '아센'창단
- 현. 극단 '아센' 대표 / 미리내 소극장 상임연출

대표연출, 출연작

〈서울 말뚝이〉 〈날 보러와요〉 〈물이여 불이여 바람이여〉 〈돌아서서 떠나라〉
〈환타스틱/철부지들〉 〈오메가 햄릿〉 〈홍도야 울지마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밭줄〉 〈대머리 여가수〉 〈양파〉 〈여보세요!!!누구세요???)〉 〈마담M의 초상〉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 〈아비가일의 파티〉 〈웨딩드레스〉 등 출연, 연출